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제761호

예.결산 정기이사회

Oct.11, 2018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Don Cha (전무 차동훈)
Tel (416)789-7891(ext.30)
e-mail.doncha@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Sunny Chon (실장 전승원)
Tel (416)789-7891(ext.21)
e-mail.sunnyc@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Business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6)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가을속으로...

C O N T E N T S

예·결산 정기이사회 개최 04 ~ 06	18 英 담배 전시 금지 정책, 효과보나?
조합 주문 시스템 가동 04	19 편의점 연령체크 성실도 여전히 고득점 AGCO 각종 신청, 온라인으로 편하게 (16면에 이어)
마리화나 소매유통에 관한 온주 정부 정책 08 ~ 11	20 미, 편의점 커피 매출 상승
쿠쉬타르, 대마초 장사 관망적 자세 12 ~ 13	21 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품사 앞장서
내년 최저 시급 15달러 백지화 14 ~ 15	22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AGCO 각종 신청, 온라인으로 편하게 16	22 Directory
원스톱 쇼핑의 최적지는 '편의점' 17	

사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었다.

급기야 현안 12명을 유지하자는 3안까지 나와 결국 3가지 안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어느 안도 과반을 넘기지 못해(1안 4표, 2안 12표, 3안 9표) 2안과 3안을 놓고 재확정하기 위해 거수 표결에 부친 결과, 2안이 19표, 3안이 6표가 나와 2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2안, 즉 6명의 직선 이사는 앞서 언급했듯 3개 지구협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적 안배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고 자파 세력 불리기를 위한 쪽지 돌리기의 구태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직선 이사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지고 '추천 이사' 정도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직선 이사 임기 2년은 채우고 이후부터 적용될 것이고 이는 정관 부칙에 명시될 것이다.

정관 개정안은 이밖에도 본부협회 부회장 2명을 1명으로, 본부협회 부이사장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이는 것으로 했으며 결국 협회 인적 구조의 슬림화를 가속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활동비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2018/2019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해 집행부의 경우 부회장 업무추진비가 지난 회계연도 16,000달러였으나 새 회계연도에는 절반인 8,000달러만 책정했다.



▲ 주점식 회칙분과위원장이 정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관련해 2,000달러 이상의 채무 발생 시 이사회 동의를 득하

입 털고 몸집 가벼이 긴급 예산 예·결산 정기이사회 개최

정관에서 규정해놓고 있는 12명의 직선 이사가 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11일 (목) 본부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결산 정기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다. 이사회 산하 회칙분과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개정안을 이미 다뤄 이날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를 거친 것인데 두가지 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거수 표결까지 두차례나 의결 절차를 밟은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1안은 12명 직선이사를 전면 폐지하고 자동이사인 지구협회장만으로 구성되는 이사로 몸집을 한껏 줄이자는 것이었다. 2안은 12명을 6명으로 줄이고 3개 지구협의회(GTA, 남서부, 동북부)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이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1-877-789-5335

Moneris
BE PAYMENT READY

실업인 협회 단체보험
KMI Brokers Inc.

집/자동차: 기준보험료 대비 **15%~20%**할인
비즈니스: 담배도난 무제한 보상 가능

오중찬 : C) 416-602-7083
jc@kmibrokers.com

는 조항도 10,000달러로 상향조정했고 채무라는 표현 대신 “예산에 없거나 예산이 있더라도 항목별로 볼 때 1만 달러가 초과 집행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동의를 득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 특별결의(2/3)와 이해 상충에 관해서도 조항을 신설해 명문화하고 세부 해당사항은 이사회 내 규에서 열거토록 했다. 이상의 개정안은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오는 10월 31일 (수)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재차 다뤄져 최종 결의된다.

정관 개정안을 기타 토의 시간에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다룬 이날 이사회에서 특기할 사항은 신재균 회장의 긴 인사말이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조합 특감이 종료된 직후라 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소회를 별도로 순서로 마련하지 않고 시간 절약을 위해 인사말을 빌어 전한 것이다.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굴러온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신 회장은 특감 결과에 대해 이 한마디로 심경을 토로하며 말문을 열었다. “리더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전무가 눈감아 주고 그 대신 사욕을 채우는 공생 관계”가 직전 시기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조합의 구태라고도 일갈했다.

그리고 최소한 직전 시기의 전무와 운영이사장에게 각각 5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공금 횡령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조합이 이제라도 제대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감 기간에 소명 기회를 줬지만 대부분의 상황을 그냥 몰랐다고만 답하는데 이런 답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형사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



▲ 내부감사 보고를 하고 있는 이만석 감사위원장. 우측은 외부감사 보고 장면

라는 말도 했다. 이를 방관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며 사사로운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신 회장은 특감과 관련해 이처럼 단호한 의지를 이사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로한 후 취재하러 온 동포 일간지 기자에게도 회의가 끝난 후 별도 인터뷰 시간을 통해 더 자세한 사후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말은 웨스트몰 매입으로 이어지며 이의 당위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곁들였다.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마진율을 낮춰 조합원의 실익에 기여하며 협회와 조합이 결속력을 가지고 한몸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소의 지론이 반복 강조됐다.

TouchCash Inc. ATM & POS

한인의,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Best People
Best Service
Best Results

타회사의 ATM, POS(Debit)를 계약하시고 문제가 많으신 분
새로 ATM, POS(Debit)를 구입계획하고 계신 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 Smart Chip
(EMV) Ready

TouchCash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최대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Internet & Phoneline 겸용

Showroom :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3K5
Call Today 1-866-391-3950 / Fax 905-513-0919

또한, 인적 쇠신에 대한 소신도 밝혔는데 협회와 조합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인력 감축을 할 것이므로 직원들의 특별한 각오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달러 주주를 없애고 100달러 주주로 구성된 현재의 조합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100달러 주주도 자기 돈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공금으로 사준 주식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협회 회원 다수가 조합원이던 시절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지난 10년 간 조합은 영업순익을 단 한번도 낸 적이 없으며 마진율만 15%에 이르는 파행을 걸어왔다고 통렬히 비판하며 조합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누차 강조했다.

정견발표를 방불케하는 신 회장의 긴 인사말은 이날 회의에서 다루어질 모든 것들의 핵심에 닿아 있었다. 이후 회의를 주관하는 이성호 이사장의 이사회 업무보고와 신 회장의 집행부 업무보고가 이어졌으며 이만석 감사위원장의 내부감사 보고, 이방록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내부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긴축에 대한 노고가 인정됐으며 다만 무궁화 요양원의 진척 상황이 계속 불투명하다면 5만 달러 기부액을 돌려



▲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이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그리고 회의 종료 후 별도로 가진 동포언론 인터뷰에서 특감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받는 것을 고려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사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고 주얼리 사업과 관련해 큰 재고를 한시바삐 털어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간단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외부감사 보고에서는 자산 소개에서 유동자산의 큰 폭 증대가 눈길을 끌었다. 전 회계연도에 120여 만 달러이던 유동 자산이 500만 달러가 넘었다. 이는 430만 달러의 모바일 건물 매각 대금으로 인한 것이며 신규 건물 매입에만 사용될 예정이다. 수지결산을 보면 수입이 1,278,337달러에 지출이 1,268,115 달러이며 약 1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새 회계연도 예산은 1,263,500달러를 책정했다. 전 회계연도 대비 약 26만 달러가 축소된 예산이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의 수입 목표 달성도 감소를 감안한 때문이다. 축소의 가장 큰 이유는 회원 감소와 이에 따른 매출의 자연감소, 그리고 날씨, 정부 정책 등 외적인 변수들로 인한 전반적인 매출 부진과 이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드 쇼 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없었던 점, OKBA 프로그램스토어 제휴사의 리베이트 축소 또는 일부 폐지 등도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업계획을 보면 주력 사업으로 OKBA 프로그램스토어 사업의 내실화를 첫 목표로 설정했고 지난 회계 연도에 발굴한 신규사업의 외연 확장에도 힘을 쏟으며 동시에 새로운 제휴사의 지속적 발굴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회원 교육 홍보와 대정부 활동 강화도 중점 사업으로 다룰 전망이다. ■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형법</p> <p style="font-size: 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협동조합 웨스트몰 매장 쇼핑이 크게 편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팩스 주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건은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방문하는 날로부터 최소 하루전날 오전(점심인 12시 이전)시간까지 주문을 넣으면 다음날 조합을 찾아 주문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날 오전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오전에 찾으러 올 경우에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수령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이미 조합은 몇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문제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좋고 만족

당분간 팩스로만 가능, 시간 절약에 큰 도움

조합 주문 시스템 가동



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모든 조합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주문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용지에 필요한 물건을 적으면 되며 당분간은 팩스로만 가능하나 카톡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주문 시스템 실시는 주문 물품들의 인기 종목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이 발전을 거듭하며 정착되면 배달 시스템 구축으로도 이어질 발판 역할로서의 기대가 크다. ■

1 SOLUTIONS

DATA CORPORATION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Company



FULL INTEGRATION SYSTEM
일체형 연동 시스템

Tel 1.888.554.7355

www.1solutions.ca / email : info@1solutions.ca

P / O / S S / Y / S / T / E / M

- **데빗 단말기 연동**
Debit terminal device integration
- **한국에서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됨**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in Korea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행**
OLG Online, Scratch Ticket, Winning Ticket Barcode System Implementation
- **클라우드 서버 사용**
Cloud Server to download and upload data
- **POS System을 이용해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소프트웨어에 저장**
POS System to store all the information of the store in "Back Office" software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성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서버 속도**
We use world's most respected cloud server provider to ensure data security and unparalleled server speed
- **LCBO Software 지원**
LCBO Software Support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를 총 \$2500**
Fully equipment, including software, training, and installation for only \$2500
- **모든 영업 운영과 경영을 포스로 가능**
All sales operations and store management are made possible through our POS system

Credit Card

The best rates for the best customers

Business Type	Discount Rate	Transaction Fee	Brand Fee	Non-Qual
Convenience Store	1.40%	No Charge	0.1%	0.3%
Other Type of Business	1.40%	No Charge	0.1%	0.3%

Debit Card

Business Type	Chip & Swipe	Tap & Flash
Convenience Store	3.65 cent	5.65 cent
Other Type of Business	3.65 cent	7.15 cent

- NO STATEMENT FEE (무료 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NO CONTRACT
- SIGNING BONUS \$300
-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마리화나 소매유통에 관한 온주 정부 정책

면허발급은 AGCO, 도매업/온라인 소매업은 OCRC

지난 9월 26일 온타리오 주정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대마초(marijuana; 學名 cannabis) 소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시행령을 입안해서 국회에 상정했음을 알리면서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이틀 후인 9월 28일에는 '대마 소매유통 추진안'(Moving Forward with Cannabis Retailing)을 공개했는데 정부의 향후 마리화나 유통 세부 방향과 지침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편의점 입장에서 지



▲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온주 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 정책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빅 피델리 재무장관과 캐롤라인 멀루니 법무장관.

대한 관심을 가질 사안 만큼 이하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 개요 (민영 판매 허용)

- 엄격한 규제와 통제 하에 마리화나 취급 면허를 발급해 민영 소매판매를 허용한다.
- 면허 발급의 기준 설정에 지자체 정부와 원주민 대표자들의 견해, 핵심적인 공안문제, 업계 의견, 보건 단체들의 입장이 두루 반영됐다.
- 민영판매라는 새로

협회 문의
(416)789-7891

www.saintjimmyscoffee.ca
**The fastest growing
coffee service in North America**

순수 캐나다산 육류제품

GREAT CANADIAN MEAT

**9월~10월
스페셜**

Regular \$2.00/per pack
Promotion \$1.62/per pack

**Promotion
Retail 2 for \$5**

1390 Hopkins St., Whitby (905)666-9395

운 시스템하에서 면허 발급은 온타리오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관장한다.

●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CRC ; 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이곳에서 도매업 부문과 온라인 소매판매 부문을 관장한다.

● 온주 산하 지자체는 민영 판매를 관할 영역내에서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를 2019년 1월 22일까지 지자체 의회 결의로 공식 채택토록 한다.

● 원주민 커뮤니티 역시 마리화나 유통과 소매판매를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

● 주정부는 지자체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법제화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총 4,000만 달러를 별도로 책정한다.

● 법령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시행되면 2018년 12월 중에 AGCO가 신청 수령작업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 감독기구 (regulator)

● 앞서 대마 소매유통 면허 담당은 AGCO가 관장한다고 했다. AGCO는 소매업소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여타 판매 행위와 관련한 제반 규정 집행도 이 기관이 담당할 것이다.

● AGCO는 온주내 주류(酒類), 사행업(gaming), 경마 사업 관련한 면허 발급,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 역시 정부가 통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며 이의 감독관리기구로서 AGCO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AGCO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민영채널을 관리감독할 것이며 대마 소매판매와 관련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불법시장 형성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AGCO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소매판매허가서(Retail Operator Licence)를 발급한다. 발급 전에 신청자의 그간의 비즈니스에 대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가지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 판매처 승인서(Retail Store Authorization)를 위 소매판매허가서 취득자에게 발급한다. 이를 위해 AGCO는 대마가 판매되는 장소에 대해 공지 절차를 밟은 후 판매가 이뤄지는 공간내의 특정 요구조건(안전문제, 보안 계획 등) 부응 여부를 확인한다.

- 특정 개인에게는 대마 판매 매니저 허가서(Cannabis Retail Manager Licence)를 발급한다.

- 대마 판매가 개시되기 전에 해당 업소 내사를 비롯해 규정 준수와 감사를 실시한다.

■ 면허 발급의 범위와 기준

● 면허 발급 전에 특정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신청자의 재정 책임 능력, 정직성과 공익성에 입각한 영업 태도 등의 이력들이 반영될 것이다.

● 대마 관련 연방 및 주법을 위반한 기록을 가진 자는 대마 판매 소매업을 허가받지 못할 것이다.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 면허 발급에 관한 다음 몇가지 원칙이 있다.

- 총 면허발급 수(소매판매허가서, 판매처 승인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지역적 편중을 피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설정할 것이며 이에 관한 세칙은 합당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2018년 12월 이전에 수립될 것이다.

- 제 3자에게 면허증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

- 허가받은 제조사의 경우는 온주내 한개의 제조 시설 영역 내에서 한개의 직판 소매업소 영업을 허가한다.

- 허가받은 소매업소는 대마 취급업소임을 알리는 인증서(seal)를 업소 내 적정 위치에 전시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영업 활동 세부 지침, 예를 들어 대마 취급 공간 구성, 안전기준, 종업원 교육 등 제반 기준들은 시행령 또는 AGCO소매업주 지침서(AGCO Registrar's standards)를 통해 수립될 것이며 후속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2018년 12월 중 AGCO가 판매 허가 신청서 접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반 시행규칙이나 지침서 수립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 대마취급 소매업소와 공공기관 (예, 학교)과의 거리 두기에 관한 기준도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 이전에 수립될 것이다.

■ 지자체 재량권

● 지자체는 2019년 1월 22일까지는 대마 소매유통에 관한 허용 여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에서 대마 소매유통을 원치 않는다면 이날까지 방침을 정해 거부할 수 있다. 유통 거부한 지자체가 이후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한다면 미래에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유통을 허용한 지자체가 - 이는 불허하기로 2019년 1월 22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할 - 향후 이를 금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못한다.

● 대마 소매 판매를 허용한 지자체의 경우, 판매처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AGCO가 공지를 해서 지자체와 판매처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이는 공지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AGCO는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표명된 여론이나 입장 및 견해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며 법무부(MAG)는 이 과정 수행과 관련해 지자체들과 의견교환을 계속할 것이다.

● 지자체 정부는 소매업 일반과는 별도로 대마 소매업을 위한 특정한 지목(地目)설정을 할 수 없으며 자체적인 대마 소매업 인허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 지자체 예산 지원

● 주정부는 산하 지자체에 향후 2년에 걸쳐 총 4,0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제도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략 지자체별도 최소 1만 달러씩은 배정될 것이다.

● 가급적 금년 내에 주정부는 가구 수에 비례해 온주내 모든 지자체에 첫 예산 지원을 할 것이며 대략 지자체별로 최소 5,000달러는 될 것이다.

● 2차 지원은 내년 1월 22일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 취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지자체 재량으로 결의토록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 따라서 2019년 1월 22일이 지나도 마리화나 소매업 허용을 금한다는 결의가 없는 지자체는 당연히 이날 이후 시점에 가구 수 비례로 계산해 2

차 지원금을 수령할 것이다.

- 지원금은 소매업 실시 초기 비용과 관련된 업무에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 마리화나 소매업을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2차 지원금을 단지 5,000달러에 한해 지원받는다.

● 주정부는 2018/2019회계연도와 2019/2020회계연도 각각의 기간에 특별 목적으로 일정액의 예비비를 편성할 것인 바 이는 마리화나 소매업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당용이며 이 특별 예산은 마리화나 소매업을 허용,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 연방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통해 확보한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duty)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첫 2년간 온주 정부에 배정할 지원금이 1억 달러를 초과하면 이 초과분의 50%는 2019년 1월 22일 이후 마리화나 소매업을 시행토록 한 지자체만을 위한 지원금으로 배정할 것이다.

■ 원주민 지역 관련

● 원주민 지역단위 의회(band council) 결의에 의해 해당 원주민 커뮤니티 안으로 기호용 마리화나의 외부 공급 및 유통을 금지한다면 역내 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행정 권한을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CRC)가 행사한다.

● 원주민 지역단위 역시 자체 의회 결의로 역내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을 불허할 수 있다. 이 결의는 시간 제약없이 아무때고 가능하다.

● 원주민 지역단위 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 허용을 승인한 후에야 AGCO가 소매업 판매처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법무장관은 원주민 커뮤니티들과 광범위하게 별도의 입법화를 위한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법화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구입 최저 연령, 소매 관련 제반 지침 등이 두루 망라될 것이다.

■ 흡연 허용 공간

●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마리화나 흡연 허용 공간에 관한 것은 담배 흡연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담배 흡연 금지 구역은 마리화나 흡연 금지 구역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 마리화나 흡연에 관한 것은 전자담배 사용을 관리하는 현행 온주담배관리법(SFOA)의 담배 관련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 소비형태(방법)가 어떤 모습이든 - 담배처럼 흡연하든 전자담배처럼

HYUNDAI OF OAKVILLE

OKBA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최저가의 가격

Warranty 25% Discount

Sales Manager **Christine Jin**

C.416.931.9171 office : 905.845.7791 (ex.229)
2500 South Service Rd. W. Oakville, On L6L 5M9

흡입하는 음식물처럼 섭취를 하든 -차량이나 보트 등 교통수단이 운행 중에는 그 안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할 수 없다.

다만 교통 수단 이용 시타인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자가 차량에서 타인이 운전하고 본인은 단지 동승자라면 비록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 정부는 마리화나 소비와 관련해 더 세밀한 규제 관리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마리화나 법안에는 전자담배의 일종인 베이퍼 제품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이퍼 제품 진열과 판촉에 관한 규정은 일반 담배 및 담배 액세서리의 진열 및 판촉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구분된 규정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퍼 제품 판매소는 연방법인 '담배와 베이퍼 제품에 관한 법률'(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품을 진열 판촉하며 주 정부 차원의 별도 추가 제약 규정은 없을 것이다. 베이퍼 제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특정 조건 충족 하에 업소내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 시연(試煙)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 (OCRC)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는 오는 10월 17일을 기해 주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매채널이 될 것이다.

19세 이상인 자는 OCRC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주문자의 희망 수령처에 포장된 제품이 전달될 때 수령인의 신원(연령)확인을 거쳐 성인임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등 안전한 방식으로 주문 처리가 되며 결코 일반 소포처럼 수령자가 아무도 없다고 문간에 놓여지는 일은 없다.

●공사는 또 소매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도매기능을 담당한다. (*복권공사 OLG가 복권상품을 소매업소에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로 이해하면 됨)

●현 보수당 정부는 대마소매업 관리 기구를 자유당 정권 시절에 계획했던 LCBO의 산하 조직이 아니라 재무장관에 직보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위상을 변경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는 고유 업무인 온라인 독점 판매와 소매상 공급의 독점 도매상으로서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 향후 일정

●법령이 발효되면 2018년 12월 중에 AGCO가 소매업 신청서 접수 작업에 착수하는데 이런 업무에 앞서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로서의 시행규칙(*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될 것이다.

●2019년 1월 22일까지 각 지자체는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소매업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주정부는 그사이에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온라인 건/강/식/품 도매 B2B

DAVIDWHOLESALE.COM

* 데이빗홀세일닷컴 연회비는 \$99입니다.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아이템, 콤부차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마시는 건강다이어트 유산균음료”



Bucha Drink
473ml

소비자가 \$3.99

도매가 \$2.42

+tax

*도매등록시 승인을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승인 시간 후 구입가능합니다.

신규 취급점 / 판매점 모집

토론토 내 배달 가능

1 Case (473ml X 12 bottles)
GTA 지역 배달가능

{ 5가지맛 }

Blood Orange / Grapefruit Sage / Guava Mango
Raspberry Pome / Yuzu Lemon

Natural products distributor B2B

DAVIDWHOLESALE.COM

그랜드
오프닝

Special Gift

\$200

VALUE

When ordering online, apply the coupon code :
*쿠폰코드(온라인에서 사용) : **DWC20198009G**

Registration Bonus

Sign up and get \$200 off for your first purchase.
You can redeem only one coupon at a time of purchase.
*No cash value.

*오메가, 아사이, 각종 비타민 다양한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바로 도매가로 구매 / 200불 특별할인도 바로 받으세요!

NOT OPEN TO THE PUBLIC www.davidwholesale.com 문의 : 416.419.3751 데이빗홀세일닷컴

Orders under \$200 before taxes and discounts are charged for shipping.

그는 “종업원들의 여론을 보니 선뜻 뛰어드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고 북미주에서의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대한 점증하는 불확실성 등이 꽃놀이패와도 같다는 마리화나 분야 진출을 망설이게 한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사내에서 견해는 아주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으나 직원들 전체 여론을 수렴해보면 50대 50으로 보는 분위기라는 말도 했다. “합법화되니 좋은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리화나 구입 손님들이 가게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안전과 보안 관련해 통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우려와 긴장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이런 생각들때문에 취급을 안하고 싶다는 반응도 꽤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마리화나 판매 문제에 신중한 것이다.”

연방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중 소매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민간 소매업소 판매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퀘벡주와 대서양 주들은 정부 산하 공기관 운영 체제를 선택했다.

최근 서클케이(Circle K)로 간판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쿠쉬타르는 미국쪽에서는 물론 맥주와 와인도 판매하고 있다. 그룹 CEO 브라이언 하나쉬씨의 말도 들어보자. “600억 달러가치의 우리 회사가 만약 기존의 방향에서 여하한 다른 방향으로 초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대규모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탐색하는 입장에 있다.” 앞의 이사장과 똑같이 마리화나 취급에 대해 거리를 두는 관망적 자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신중한 기류는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달랐다. 지난해에 회사 고위층들은 대체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취급에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 지난 11월에 하나쉬 회장은 서부의 한 주 정부와 마리화나 판매의 좋은 파트너가 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그 이전에는 쟁쟁한 로비스트까지 고용해 퀘벡주 마리화나 공급 시스템에 개입할 기회까지 엿본 적도 있었지만 그때 퀘벡 주정부는 냉랭한 반응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대해 부샤르 이사장은 성사되지 못한 것을 놓고 불쾌감까지 보였다.

이사장은 정부가 민간 소매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자주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퀘벡주류공사(Quebec Liquor Corp.)를 독점기구라고 과거에 꽤나 비판적이었다. 어떤 결정적 계기가 천하의 쿠쉬타르로 하여금 마리화나 장사에 대해 탐색적인 자세를 만들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한편, 쿠쉬타르의 미온적 입장과는 달리 협회 회원처럼 독립편의점 업주들은 전반적으로 마리화나 취급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며 지난 9월 26일 온주 정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발표를 접하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업소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의점 판매 허용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보수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알버타의 경우 시행 1년차에는 250개소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 국회 상정, 독립편의점 초미의 관심

쿠쉬타르, 대마초 장사 관망적 자세



▲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쿠쉬타르의 창업자 알랭 부샤르의 속내는...

국내 최대 편의점 그룹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 Inc.)가 의외로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 시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명의 공동 창업자 중 한명이며 현재 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알랭 부샤르(Alain Bouchard)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 체인점의 경우에는 취급 면허 발급 수에 제한을 둘 것이다.(예를 들어 어느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100개라고 할 때 100개 모두에게 발급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독립 편의점의 입지가 여유로울 수 있는 고무적 조치다.

■ 온주 정부는 산하 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공공기관(학교, 정부청사 등)과 판매처 사이에 거리 제한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주정부 소관 사항이며 대략 1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 전문가는 200미터를 점치고 있다.)

■ 지자체가 관할 지역내의 마리화나 민영 판매를 원치 않으면 2019년 1월 22일 전까지 이를 결의, 공표한다.(마감은 이미 민영 판매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가받은 제조사들도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를 받아서 1개 업소에 한 해 제조 시설 소재 영역 내에서 직판이 가능하다.

■ 기존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Dispensaries)는 오는 10월 17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 허가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영업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

■ 판매를 희망하는 소매업소는 2개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나는 판매면허(license), 또 하나는 판매처 승인(store authorization)이다.

이는 예를 들어 한 주인이 여러개의 업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판매 면허는 하나를 받지만 판매처 승인은 원하는 수만큼 모두 받도록 한다는 의미다.

■ 온라인 판매와 도매업 유통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인 온주대마소매업 관리공사(Ontario Cannabis Retail Corp.)를 설립 운영할 것이며 면허 관련, 제제조치 등의 법적 관리 통제 업무는 온주 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맡을 것이다. (*현재 복권 소매업을 판매관리는 OLG, 인허가는 AGCO가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이상이 정부시행령안에 들어 있는 주요 내용들인데 담배 통제와 매우 닮은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캐롤라인 멀루니 법무장관도 “온주담배 관리법(Smoke-Free Ontario Act)과의 조화를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관리 통제 수위는 담배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차량이든 수상 교통수단이든 운전 중에는 마리화나를 피우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법령안이 의회로 넘어간 지금 세부 내용, 특히 편의점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에 대해 회원들을 포함한 편의점 업계 전체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쿠슈타르와 협회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온주편의점협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발 빠르게 전하면서 10월 초에 열린 이사회에서 정부안을 놓고 깊은 논의가 있었다. (법령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본 호 8면 ~ 11면 참조) ■



캐나다한인여성회

2018년 10월 프로그램

제12회 KCWA미술전시회-그리며 생각하며-
-장소: KCWA노스욕
-일시: 10월23일(화) 오후1시~7시

<p style="text-align: center;">세이프 클럽</p> <p>■ 일시: 10월 3, 10, 17일 (수) 오전10시 - 오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p> <p>■ 내용: 정착 영어와 캐나다인 문화 배우기</p> <p><small>*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및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남녀 *영어레벨 중급 또는 중급이상 *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 일시: 10월 5, 12, 19, 26일 (금) 총 4회 오전10시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신성희</p> <p>■ 내용: 1.성격유형으로 풀아가는 자녀와의 소통의 기술 2.불안하고 화나는 감정을 돌보기 -아이가 엄마에게 화내는 진짜 이유 3.스마트폰과 게임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 4.성장하는 엄마, 아이의 마음을 아는 엄마</p> <p><small>*정원 20명 (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혼자하는 영주권 갱신</p> <p>■ 일시: 10월 9일 (화) 오후6시 - 오후7시30분</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영주권자의 거주무 규정 2.영주권과 신정 및 갱신 안내 3.준비서류와 진행 4.신청서 작성의 실제 5.사례 나누기 및 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 초청 안내</p> <p>■ 일시: 10월 11일 (목) 오후6시 - 오후7시30분</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p> <p>■ 내용: 1.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 2.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3.신청서와 준비서류 4.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 시민권 시험준비반</p> <p>■ 일시: 10월 13일 (토) 오전10시 - 오후4시</p> <p>■ 장소: KCWA 다운타운</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캐나다 정보, 사법 시스템 4.캐나다 상징, 경제, 지리 5.문제풀이</p> <p><small>*등록비\$20 (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활기찬 노후 준비 시리즈</p> <p>■ 일시: 10월 16, 23, 30일 (화) 11월 6, 13일 (화) 총 5회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p> <p>■ 내용: 1.삶의 의미, 노후를 위한 재정관리 2.노인연금 3.정부 임대주택(노인 아파트) 4.유언과 상속 5.자원봉사, 헬스케어, 모지와 장례사전 준비</p> <p><small>*정원30명 (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알아두면 힘이 되는 개인상해정보</p> <p>■ 일시: 10월 18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p> <p>■ 내용: 1.개인상해의 유형 2.자동차 사고 후 처리단계 3.온타리오 재해보상의 종류 4.개인상해 청구 소송 과정 5.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캐나다 국제청과 함께하는 세금보고 자원봉사활동 안내</p> <p>■ 일시: 10월 22일 (월)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p> <p>■ 내용: 1.세금보고 자원봉사활동이란(CVITP)? 2.CVITP 자원봉사자가 되는 방법 3.CVITP프로그램의 장점 4.자원봉사활동과 경력의 연계 5.성공사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 기술직 취업 시리즈 1 -전기 기술자 설명회-</p> <p>■ 일시: 10월 23일 (화) 오전10시 - 오후12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전기기술자 교육 지원 자격 조건 2.교육내용 및 자격증 취득 안내 3.교육일정, 장소, 시간, 수업 시간표 4.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하고 신나는 Halloween 준비하기</p> <p>■ 일시: 10월 24일 (수)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p> <p>■ 내용: 1.할로윈의 유래와 의미 2.호박의 의미와 유래 3.사탕을 주고 받는 이유 4.Trick or Treat 영어로 연습해 보기 5.사탕이나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품 아이디어</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온타리오주 대학 입학안내</p> <p>■ 일시: 10월 25일 (목) 오후6시 - 오후8시</p> <p>■ 장소: KCWA 노스욕</p> <p>■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p> <p>■ 내용: 1.온타리오주 대학 소개 2.학교/학과 선택시 고려할 사항 3.온라인 지원서 작성방법 4.질문과 답변</p> <p><small>*사전등록 필수</small></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가정법 안내</p> <p>■ 일시: 10월 31일 (수)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p> <p>■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Thornhill)</p> <p>■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p> <p>■ 내용: 1.가정법 법을 안내 2.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 3.법원의 위치와 저소득층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4.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 안내</p> <p><small>*사전등록 필수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small></p>
<p>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욕: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p>		<p>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 일시: 10월 15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p>		<p>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10월 13일, 27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p>	

Canada Funded b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Financé par: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TORONTO 주토론토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15달러로 재차 인상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정권이 바뀌며 회원 업소들도 줄인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언제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인지는 예고하지 않고 일단 내년도도 현행 14달러를 유지한다는 것만 확인됐다. 최저임금 문제는 어느나라나 다 진통을 겪는 핫 이슈인데 한국에서도 편의점 업주들의 모임을 비롯한 시급 알바에 의존하는 자영업체들이 1만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거세게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까지 벌여 현 정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단 온타리오는 14달러로 묶여 있어 소나기는 피한데 반해 알버타는 예고했던대로 지난 10월 1일부터 15달러로 인상, 시행에 들어갔다. 알버타 편의점 업계의 우려는 지난 9월 20일 오타와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회장 신재균)연차 총회 자리에서도 제기됐었다.

한편, 온주 보수당은 전 자유당 정부가 통과해 시행 중인 노동관련법 Bill 148의 핵심을 건드리며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2일 대정부 질의에서 자유당 마이클 코토(Michael Coteau) 의원의 질문에 대해 더그 포드 수상은 격한 목소리로 “우리는 지금 Bill 148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Bill 148은 일명 ‘공정한 사업장, 더 나은 직장’에 관한 법률(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을 말하는데 기존 근로고용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자유당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27일에 부총독의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법률이 됐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수상은 “이 법률때문에 6만 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6만여 명은 비정규직(part time position)을 가리킨다.

법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인 작년 5월에 발표가 됐다. 그리고 그 개정안에 근거해 나온 정책이 바로 2018년부터 최저 시급 14달러, 2019년 15달러 인상안이었으며 비정규직(part time)에 대한 정규직과의 동등한 임금 지급 및 휴가 확대도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전임 캐슬린 원 수상이 직접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데도 고용 보장과 근로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공정한 근로환경과 더 나은 고용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인용된 자료를 보면 온주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시급이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10%는 최저 시급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이 10%에 속하는 것이 편의점 펌퍼들일 것이다.

또 어느나라나 비슷한 사정이겠지만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 사회적 양극화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법안에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임금을 동등하게 지급해 주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연간 적어도 3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자율타임제 직원의 근무를 취소할 경우 48시간 안에 통보해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

집권 보수당, 내친 김에 Bill 148 폐지 검토

내년 최저 시급 15달러 백지화



▲ 더그 포드 수상이 10월 2일 전 정권인 자유당 정부가 시행한 개정 노동법(Bill 148) 핵심 내용들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급 14달러니 15달러니 하는 정책도 다 이 법안에 근거해 나온 것들이었다. 포드 수상은 총선 전 당수 경선에 앞서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15달러 인상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결국 이 공약을 지켰다.

새로 들어선 온타리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이전 정권인 자유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우선 소자영업에 해당하는 독립 편의점 업주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예견했던 일이지만 지난 9월 26일 로리스크트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2019년 최저시급 15달러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작년까지 11.60달러였던 최저 시급이 올해 들어 14달러로 파격 인상된

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대목이 모든 근로자가 연 간 임금상
 황을 이유로 10일의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이들은 유급처리해
 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만 이를 준수할 수 있
 을 뿐 소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배경 설명은 이쯤하고 다시 더그 포드 수상 이야기로 돌아와 수상은 자
 신의 체험담도 소개했다. “온타리오를 두루 다니며 최저임금을 받지만 그
 래도 일터를 든든히 확보하고 만족해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
 다. 언젠가 자그마한 홈하드웨어를 들러 주인으로부터 실상을 들어보니
 전에 7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을 쓰던 것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하더라. 그게
 Bill 148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연방통계청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작년 8월 대비해 온타리오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이 1.1% 늘었다.
 이는 79,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해당한다. Bill148이 올해 1월 발효된 후
 온주 전체 근무 총시간 역시 증가했다. 통계 인용의 기준이 달라 결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대정부 질의에서 수상은 자유당과 신민
 당 의원들로부터 술한 비판적 질문 공세를 막아내느라 곤욕을 치렀다.

야당들은 물론 15불 임금 인상을 비롯한 개정 노동법 사수에 집중 무게
 를 실었고 정부여당은 당연히 업주나 사용주의 사업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에 무게가 실린 답변으로 응수했다. 근로자 권의 옹호
 단체, 의사들도 야당 지원에 나서며 열악한 근로조건 타개를 주창했다.

반면 온타리오 상공 회의소 회장 로코로 씨는 포드 수상을 적극 옹호했
 다. “Bill 148 폐기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전체 경제와 근로자 자신들
 에 게도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 법이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달갑잖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바로 제품의 가격인상이다. 인건비 상승분
 은 고스란히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가 감당하기 어려
 워지면 종업원 감원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 편
 의점 업계에서 계속 지적했고 작년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본부협회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에서도 반복해서 주장했던 핵심이다. ■



▲ 협회 주관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에서 주장한 핵심의 하나가 과격함 임
 금인상 철회였다.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열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 VS. | 최고급 점보 씨앗 |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정보(주소, 신상관련 등등)변경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편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한 몇가지 간단한 수고가 필요한데 이 또한 전혀 복잡할 것이 없고 그래도 힘들다면 자녀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 검색엔진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 이상이나 구글 크롬 33 이상이 깔려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이들 엔진 중 하나를 다운받는다.

● 그리고 난 후 AGCO 웹사이트 www.agco.ca에 들어간다.

● 초기 화면 상단에 iAGCO Online Services 가 나온다. 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등록절차 나온다. 본인의 어카운트 로그인(접속)이 될 수 있도록 지시대로 조치한다. (처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한번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다음부터는 로그인하기가 간단해질 것이다.)

필요한 신청서를 선택해 신청서가 나오면 질문에 답하고 요구되는 필요한 첨부물은 사진을 찍어 파일을 만든 후 이를 첨부해서 제출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서를 발송(submit) 하면 받았다는 인증이 나타날 것이다.

복권영업 갱신 1년 폐지, 4년으로 일원화

AGCO 각종 신청, 온라인으로 편하게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웹 기반 포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미 2017년 5월 29일과 올해 1월 29일 두 차례 단계를 거쳐 지난 9월부터 실질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는데 최종 완성 단계는 내년 말 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는 여러모로 편리하다. 서류로 작성해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편물 배달 사고가 날 수도있고 촉박한 시간을 지키느라 애를 태우니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도있지만 이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수할 염려도 없고 정보가 잘못 기입되거나 누락되면 과정에서 즉각 검증이 돼 수정 보완이 매우 용이하다. 거기다가 접수되고 진행된 상황이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쓸데없는 궁금증도 불식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어카운트 설정 및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에 관한 것은 대략 이쯤하고 협회 회원의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복권 영업 허가 갱신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AGCO의 복권영업 갱신은 1년마다 하는 간이양식 제출과 4년마다 하는 상세양식으로 두종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간이양식은 불과 몇페이지에 불과해 그리 어렵지 않지만 4년마다 하는 것은 페이지수도 많고 공이 많이 들어 꽤나 신경써서 작성하고 있는 것도 다 체험한 바 그대로다.

그런데 반감계도 AGCO는 1년 간이양식은 폐지하고 4년 상세양식으로 일원화한다고 한다. 다만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갱신 허가서에는 신청자마다 유효 시점이 전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4년 양식을 제출한 사람을 보자. 올해도 갱신 신청하라고 AGCO로부터 서신이 온다.

(19면에 계속)

체크아웃 기술 도입으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67%가 식료품같은 것을 당일날 배달 받는 서비스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는 차로 5분 거리에 편의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작은 마을이나 시골의 경우 86%는 10분 이내에 편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미국에서 편의점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 하겠다.

NACS부회장 제프 레너드씨는 “편리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업종을 가리키는 이름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리성(convenience)은 편리한 위치, 빠른 서비스, 원스톱 쇼핑, 24시간 영업 등이 총 망라된 개념이라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부회장은 “더 중요한 사실은 편의점 산업이 여전히 계속 혁신의 길을 걷고 있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더 편리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원스톱 쇼핑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마 이 분야에 관해서는 모국 편의점이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다.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 편의점을 뛰어넘어 인구 비례로 이미 일본을 앞지른 과포화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고 본사의 갑질에 점주들의 스트레스와 알바생들의 최저임금 논란 등으로 요즘 부쩍 논란거리로 자주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원스톱 쇼핑의 지위는 견고하다. 금융, 물류, 택배, 의약품 판매, 간편식, 24시간 영업, 공공서비스까지 못하는 기능이 없는 만능공간이다.

한국의 편의점이 전성시대를 맞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음식이다. 가공 포장식품이나 팔던 단계에서 90년대부터 삼각김밥이 등장해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도시락이 뒤를 이어 먹거리를 풍요롭게 했고 1인 가구 증가와 발맞춰 온갖 간편식사용 푸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택배 서비스는 생활밀착형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현금자동입출, 휴대전화 판매, 보험가입, 지하철 매표, 공과금, 통신료 납부까지 나열하려면 끝도 없다. 원스톱 쇼핑의 진수를 한국 편의점이 보여주고 있다. ■

기름 손님 절반은 가게 안으로

원스톱 쇼핑의 최적지는 ‘편의점’



▲ 영국에는 원스톱이라는 간편명의 체인편의점도 있다.

전미편의점협회(NACS)가 최근 조사한 여론 분석 결과, 주유소를 들른 손님이 기름넣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채우고 가게 안에서 주전부리나 음료수를 사기 위한 목적이다. 빠른 서비스와 편리한 위치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의 장점으로 꼽는 불변의 핵심 요소다. 미국의 경우 간편한 원스톱 쇼핑 채널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꼽고 있는데 캐나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름넣고 가게 안까지 들어온 손님이 다른 아이템 쇼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는다. 주된 목적에서 1순위를 차지한 것은 음료수 구입(53%)이었다.

스낵 또는 음료를 사기 위해 어디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이냐는 질문에 35%가 편의점이라고 답한 반면, 패스트푸드점은 18%에 불과해 거의 배 가까이 편의점이 우력적인 면모를 증명했다.

소비자들의 빠른 서비스에 대한 애착도 대단했다. 92%의 소비자가 자동

2018년 정기총회 소집 공고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정관 제 3장 제 7조 '회의' 제 3항 '총회 소집'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 총회를 소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1시
- 장소 : 협동조합 웨스트몰 부속 회의실(교회)
169 The West Mall, Etobicoke
- 안건 - 예 · 결산 보고
- 내 · 외부감사 보고
- 정관 개정 심의 의결

〈참고사항〉

회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부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신재균

잉글랜드 지역 전체의 11세에서 15세 사이의 미성년자 1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아이들의 40%가 편의점 등 가게에서 담배를 그간 구입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의 57%보다 큰 폭의 하락이다. 뒤집어보면 정품 담배를 취급하는 영국의 편의점이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담배를 팔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여하튼 정부 입장에서선 뒷벽 전시 금지로 인한 큰 폭의 미성년자 담배구입 감소율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할 것 같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보고서 작성자 앤소니 레버티씨는 “아동들에게는 담배가 전시돼 있다는 것만으로 시각적 영향을 받아 흡연 욕구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배 취급업소에서 담배 전시를 금지토록 한 정책은 미성년자 보건 증진과 관련해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아동 흡연 이외에 성인 흡연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몇 가지 분석을 곁들이고 있는데 동일한 기간 성인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담배 가격을 크게 높여 이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동 흡연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성년자들이 일반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기가 용이하다”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담배통제 관련 인력을 크게 감축한 것이 그 이유라고 꼽았다.

보고서는 담배취급 업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술판매처럼 담배 취급도 정부의 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편의점협회 제임스 로우만 회장은 “미성년자의 담배접근을 차단하는 데 있어 편의점 업계가 연령체크를 철저히 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은 또 캐나다와 유사한 정책인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훈련에도 각별히 공을 들인다는 점을 부각했다. 영국은 중앙 정부 차원의 담배취급 허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이미 오래 전부터 금연 단체나 보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지만 편의점 산업이 잘 대응해오고 있다.

회장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하는 루트는 친구 또는 가족을 통해서이며 따라서 공연히 법을 잘 준수하며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에게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성년 흡연자의 65%가 가게에서 담배 사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재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편의점협회가 조사한 실태에 의하면 담배를 구하려고 시도했던 미성년자의 2/3는 업소에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양쪽에서 벌어진 논박의 진실게임이 쉽사리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담배뒷벽전시로 업소에서 정품담배를 사기 어려워졌다고 미성년자들의 흡연율이 줄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이들이 불법담배 시장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캐나다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일이다. ■

미성년자 구입 17% 감소... 혹시 암시장으로? 英 담배 전시 금지 정책, 효과보나?



지난 2015년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담배 뒷벽 전시 금지 정책이 미성년자 담배구입 차단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인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Imperial College London)이 최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시점인 2010과 정책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6을 비교해보니 미성년자들의 담배 구입 횟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보건부 자료가 입증

편의점 연령체크 성실도 여전히 고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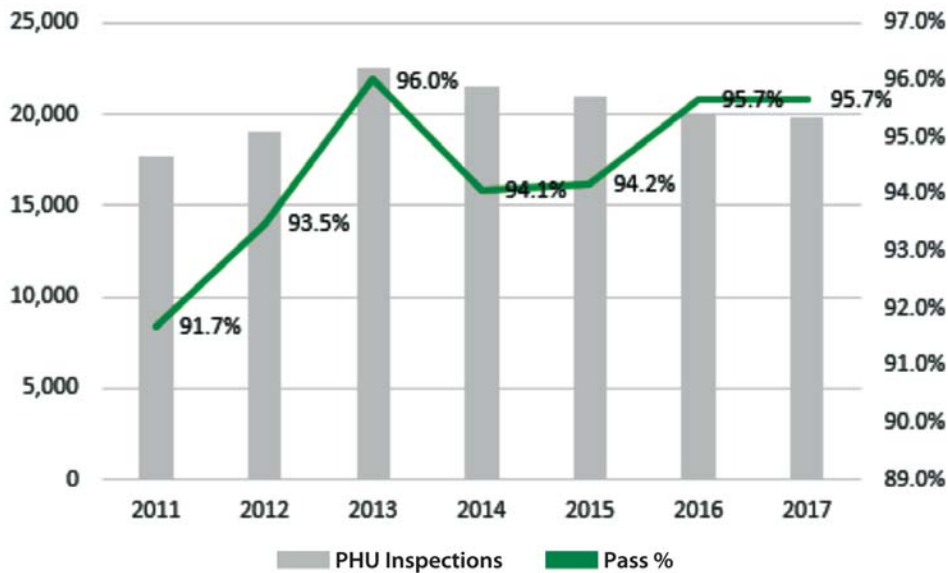
온타리오 내 편의점 채널이 연령제한 구매 물품 예를 들어 담배, 복권, 술, 전자담배 등과 같은 제품 판매 시 미성년자인지 연령을 확인하는 성실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는 최근 온주편의점협회(OCSA)가 온주 법무부와 보건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밝힌 결과다.

2017년에 보건당국이 총 19,822회의 암행소평(mystery shopping)을 수행해 얻은 평가에 따르면 편의점 채널이 미성년자(담배의 경우 19세 미만) 신원확인과 판매 거절을 한 성공률이 95.7%를

연했다고. 다른 어떤 소매업 채널도 이만큼의 성실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은 결과에 대해 “편의점 채널은 커뮤니티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온타리오에서 가장 높은 표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은 “편의점 업주와 종업원들은 연령체크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 훈련도 받는데 이에 어떤 신분증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Youth Access Inspections and Pass %



In 2017, 19 822 SFOA checks found convenience stores to be 95.7% successful at responsibly retailing age-restricted products

<16면에 이어> AGCO 각종 신청, 온라인으로 편하게

양식을 작성해 AGCO로 보내면 2020년까지 유효한 갱신 허가서류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4년 양식 제출이 2016년이므로 이후 4년 양식은 2020년에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를 계산해서 2020년까지 유효한 허가서를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에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갱신 요청 서류를 받았을 경우 과거처럼 양식에 메뉴얼로 작성하는 수고 대신 앞서 소개한 바로 iAGCO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실수를 줄이고 수정작업이 용이하며 진행과정의 궁금증이 즉석에서 해소된다는 장점들은 이미 설명한대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접수를 즉시 인증해주고 이메일로 허

가서가 송부된다. 이를 컴퓨터에서 출력해 가정이나 사업장에 보관하면 된다. 유효기간 만료 최소 60일 전에는 송부될 것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허가에 2~4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2개월 전후) 출력해서 보관할 때 복권공사(OLG) 소매업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GCO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복권영업 허가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신청 서비스가 있으니 해당 되는 추가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받으면 될 것이다. 때로는 수수료 지급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3만 달러 미만의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결제된다. ■

그런가 하면 마켓팅전문 기관인 NPD그룹 보고에 따르면 대형 커피체인사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형 커피체인사와 독립 커피숍의 경우는 아예 매출이 하강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유소병설이든 단독이든 편의점 등 순수 커피점이 아닌 채널의 커피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2017년에 미국 편의점에서 손님 셀프로 구매되는 더운 음료의 매출은 푸드서비스 매출에서 두번째로 높은 14%를 점유했다. 또 주유소 병설 편의점 커피의 맛과 품질 수준이 크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스버디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주유소 편의점 커피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 있어 75% 이상의 편의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가장 애호받는 식음료로 커피가 꼽혔다.

개스버디 편의점/소매트렌드 분석가 프랭크 비어드씨는 “주유소병설 편의점 체인사들이 더운 음료 프로그램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 편의점의 대명사 세븐일레븐과 와와(Wawa) 등 주요 편의점들도 특별한 맛이나 품격을 자랑하는 커피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고 업계 트렌드를 전했다.



▲ 편의점이라고 쓰고 대형할인매장이라고부른다. 딸린 주유소 펌프가 보통 80개가 넘는다.

전국적으로 주유소병설 편의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은 커피는 뷁키스(Buc-ee's) 커피였다. 주 단위로는 퀵트립(QuickTrip)이 7개 주에서 최고 점수, 와와와 컴버랜드팜(Cumberland Farms)가 6개 주에서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모두 미국내에서 명성있는 편의점체인들인데 다만 뷁키스라는 편의점은 생소할 수도 있다.

잠시 소개하면 1982년 창립된 신생기업으로 텍사스 레이크 잭슨에 본사를 두고 있고 텍사스에서만 발견되는 체인으로 40개를 거느리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타주에 1개씩 오픈하고 있다. 그러니 업소 수 규모로 보면 그리 주목할 것도 없지만 단일 매장 규모에서 화제거리를 만들고 있다. 딸은 편의점이라고 하면서 안에 들어가면 월마트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한다. 주민들도 여기서 오만가지 쇼핑을 다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병설 주유소 펌프가 보통 80~120개 정도이니 얼마나 대규모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회사 로고를 귀엽게 생긴 비버로 디자인한 것도

(21면에 계속)

전통 커피체인점 매출 둔화 또는 감소 미, 편의점 커피 매출 상승



▲ 미국 편의점 채널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순위에 오른 뷁키스(Buc-ee's) 커피 키오스크.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커피숍은 멀리하면서 반면 편의점 커피로 취향을 바꾸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국커피의 날(National Coffee Day)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유소 정보 전문 회사인 개스버디(GasBuddy)가 전국 각 주별로 어느 주유소 커피가 최고로 맛있는지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스버디는 주유소병설 편의점 업계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고 앱을 통해 가장 저렴한 주유소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리는 회사다.

로드맵은 또 이들 큰손 식품 유통사들이 납품사들을 지원하는 방안,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까지도 이끄는 임무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략 90여 업체와 기관들이 이 협약에 참가했으며 식품제조사, 공급사, 환대산업, 푸드서비스 업체들이 망라돼 있다. 이미 위원회도 발족시켰으며 내년 9월까지 일단 영국내 규모 순위 250위 안에 드는 식품 비즈니스의 절반이 식품 쓰레기 줄이기 자체 방안과 보고서 제출을 하도록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2026년까지 250개 업체 모두가 이 캠페인에 동참토록 한다는 것이다.

영국이 한해 평균 쏟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는 값어치로 환산하면 200억 파운드(CD\$340억), 개인 당 300 파운드(CD\$510)가 돌아가는 천문학적 돈이다. 로드맵 협약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더 빨리 타개하려는 취지에 이미 작년에 수립된 '코톨드2025'(Courtauld 2025)의 목표치인 음식물 쓰레기 40%감소를 2025년보다 앞당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전체 50%까지 줄이기로 한 목표도 속도를 더 내 조기 실현하자는 것이다.

IGD 회장 조앤 핀치씨는 이번 협약과 관련, "영국 소비자들이 우리 사회 의제 중 음식물 쓰레기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임을 인식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코톨드2025에 이어 로드맵 협약이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코톨드2025 협약이 발표될 때 밝힌 또 다른 목표는 식품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자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재활용 촉진 단체인 리사이클링보드(Recycling Board)를 포함한 영국 24개 지자체와 코카콜라, 네슬레, 피자헛 등 주요 식품회사 및 체인 식당까지 가세해 '쓰레기 재활용 촉진프로그램'(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이라는 캠페인에도 참가했다.

앞서 소개한 랩(Wrap)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75%는 하기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물량이었다. 즉, 사람의 부주의나 낭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자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런 양상은 영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잘먹고 잘사는 나라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

75%는 나오지 말아야 쓰레기

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품사 앞장서



영국 주요 슈퍼마켓과 할인 매장 등이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 줄이기와 관련한 완전히 새로운 협약에 줄이어 자발적 서명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음식물 쓰레기가 1천만 톤 이상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현격하게 줄이자는 취지의 협약이 이미 작년에 식품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영국 식품 업계가 창립한 연구기관 IGD와 환경단체 랩(Wrap)이 주도해 다시 다듬어진 캠페인은 '음식물쓰레기 감축 로드맵'(Food Waste Reduction Roadmap; 이하 '로드맵')으로 불린다. 이는 대형 식품 유통사들이 동참해 쓰레기 감량 목표치 설정, 실천 방안 수립, 정보 공유 등을 망라해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식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20면에 이어〉 미, 편의점 커피 매출 상승



눈길을 끈다.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커피맛이 편의점 채널에서는 미국 최고라고 하니 이색적이기는 하다. 회사 소개를 보면 주력 상품의 하나로 당당히 커피를 앞세우고 있다. 한편, 앞서 커피의 날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더 이야기를 한다. 커피의 날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달리 정하고 있으나 '세계커피의날'은 10월 1일이다. 제정된 것도 불과 지난 2015년의 일이다. 캐나다는 미국을 따라 9월29일이 커피의 날이다. 일본과 독일은 10월 1일이다. ■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중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중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54 - 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겸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이응학 (519) 734 - 7111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OKBA 온타리오 한인사업인협회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공지사항
실업뉴스
기사판
실업뉴스PDF 보기
KBA협동조합 특별세
KBA협동조합 공동구제

OKBA와 친구해요!
키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성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AVANTIS
BRINGING YOUR IDEAS TO LIFE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416-880-9734

Weston Bakeries 베이커리서비스
South Cove 취급신청서
상업뉴스

Merchant Services
Preferred Pricing Program
인디액 서비스 단계 계약 체결

OKBA PROGRAM STORE
공지사항

OKBA Exclusive Deal
Moneris
합회당첨

SOS SAVE OUR STORES
www.saveourstores.ca
자유게시판

FritoLay Special
2018.2.25~3.24

Convenience U & CARWACS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OKBA 우수회원 특별 혜택

Nestle Ice Cream Exc.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OKBA 우수회원 특별 혜택

2017/2018 회계연도
2018년 정기회비 수납서

2017/2018 회계연도
2018년 정기회비 수납서

2017/2018 회계연도
2018년 정기회비 수납서

SOLUTIONS
Laser & ATM Repairs
905.962.1989
1-888-554-7355

JTI
지금 주문하세요!

RBH
Retailer Business Hub

FritoLay

Nestle

합회소개 / 협회조직 / 협회정관 및 내규 / 회원가입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지구협회소개 / 찾아오시는 길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tario M9C 1C2 대표전화: (416) 789-7891 / 팩스번호: (416) 789-7834



OKBA 컨비니언스의 미래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2018.10.7~2018.11.3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8년 10월 7일부터 2018년 11월 3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Doritos XL

Club Gold
Club Platinum
Club Diamond

2/\$7



Cheetos XL

Club Gold
Club Platinum
Club Diamond

2/\$7



Single Serve

Doritos & Mountain Dew 591ml

Club Diamond

2/\$3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